



시원한 국물이 일품, 산지국밥

사실 여행을 즐겨 다니는 사람도 대도시를 목적지로 삼아 여행을 떠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대전, 대구 등 대륙의 대도시는 사실 순수한 여행보다는 업무 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행은 대개 한나절 또는 당일 일정의 짧은 여정이 대부분으로 시내 관광에 나서는 일은 드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고장의 특산 음식을 맛보는 일은 잠시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한번 도전해 볼 일이다.

글 · 사진 : 전기환



▲ 대구 앞산 공원 케이블카

대구 is 한반도 동남부 영남내륙 중심에 위치해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에 시가지가 형성된 전형적인 분지형 도시다. 도심에 가로질러 신천이 흐르고 시 외곽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이 자리 잡고 있다.

또 3500여 년 전통의 약령시 축제를 비롯해 섬유패션 축제, 동성로 축제, 비슬산 참꽃제, 달구벌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연중 펼쳐진다. 시 외곽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적 도시인 경주와 안동, 가야의 유적이 산재한 고령, 그리고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합천 해인사에 이르기까지 영남관광의 거점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고속철도(KTX)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에서 불과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놓이게 되었다.

시민들의 쉼터 앞산공원

대구 대덕산에 자리하고 있는 앞산공원은 대구 시

민들에게 휴식이 되어주는 쉼터다. 도심에 위치해 대구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산공원은 대구시가 1970년부터 공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수량이 풍부하고 골이 깊은 계곡이 여러 곳 있어 예로부터 대구 시민들에게는 여행 명소로 즐겨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부분의 녹지가 주택지로 개발되었지만 앞산만큼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도심에 맑은 공기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허파와 같다. 공원은 대구 대명동을 비롯해 봉덕동, 파동, 송현동 까지 이어진다.

큰골, 안지랑골, 고산골 등 많은 골짜기를 이뤄 등산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흔히 앞산공원이라고 하면 큰골을 일컫는다. 앞산공원에서 가장 큰 골짜기이기도 하다.

큰골 중턱에는 지난 1974년 케이블카가 건설되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대구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삭도가 있었는데 6년 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다.

케이블카 바로 밑 놀이시설에는 회전비행기, 회전그네, 회전목마, 동물가족, 허니문카, 팽이놀이, 전자오락실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아래 낙동강승전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곳이다. 전쟁에 투입되었던 탱크,

▼ 대구 앞산 공원 은적사



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천년고찰 은적사 역시 안지랑골의 명소 중 하나다. 은적사는 고려 왕건이 은신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웅전, 요사채, 칠성각이 있고 태조 왕건이 몸을 숨겼다는 토굴이 있다.

또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대형 수영장이 있다. 그리고 궁도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등 여러 위락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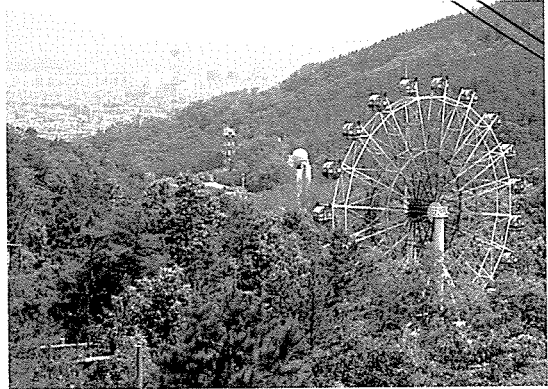
국과 밥이 따로 나와 따로국밥

대구 앞산공원 안지랑골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대덕식당은 선지국밥으로 유명한 곳이다. 국과 밥이 따로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따로국밥은 대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그 가운데 대덕식당의 선지국밥은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잘 알려져 있다.

신선한 선지를 주원료로 한우사골, 마늘, 파 등 사람 몸에 좋은 10여 가지 재료를 넣고 푹 끓여낸 국물 맛이 일품이다. 식당 입구의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한우사골을 끓이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대구 시민은 물론 대구를 찾은 외지인도 일부러 한번은 찾는 명소가 된지 벌써 오래되었다. 유명하다는 정치인, 문인들이 자주 드나든다. 특히 가격이 3,000원으로 저렴해 더욱 인기가 좋다. 지난 1979년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도 나름의 매력이다. 예전보다 식당의 규모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구수한 국물 맛은 변함이 없다. ☺

▼ 대구 앞산공원 전경



실용정보

☞ 앞산공원

무료입장. 교통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신천대로와 함께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616번 616-1, 910번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항한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053-625-0967

☞ 은적사

은적사는 고려 왕건이 은신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웅전, 요사채, 칠성각이 있고 태조 왕건이 몸을 숨겼다는 토굴이 있다. 그의 행적이 깃든 팔공산 지묘동 파군재, 은적사, 안일사, 임휴사, 직지사 등은 모두 유서 깊은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앞산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은적사 ☎053-653-1572

☞ 대덕식당

메뉴 선지국밥 3,000원 (손님이 많아 선불을 받는다).

위치 앞산공원 안지랑골 입구. 앞산순환도로에서 안지랑골로 내려가면 된다. 시내버스 18, 19, 86, 102, 좌석버스 386번이 식당 앞을 지난다.

☎053-656-8111



☞ 앞산케이블카

해발 300m~600m에 이르는 795m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운행시간 오전 9시~오후 7시30분(동절기 오후 5시30분까지)

요금(왕복) 성인 4,500원, 소인 3,000원, ☎053-656-2994